

<책읽기 좋은날>

: 신입활동가를 위한 비영리 섹터 책 나눔

1. 1차 모임

일시	2014년 10월 20일 월요일 오후 7시
장소	광화문역 모스카페
내용	
<p><모멸감> 독서를 통해 신입활동가의 삶속에서 느끼는 다양한 모멸감의 형태와 한국사회에서 나타나는 모멸감에 대한 이야기 진행.</p>	
	
<p>● 이야기 주제 : 한국사회에서 나타나는 사회현상으로서의 모멸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간베스트 회원들이 주는 모멸감의 행동들? · 과연 일간베스트 회원들의 행동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 일간베스트 회원들을 이해할 수 있는지? 	
<p>① 시사인의 일베 관련 기사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21341 <이제 국가 앞에 당당히 선 '일베의 청년들'> "장면 하나. 9월6일 토요일, 서울 광화문광장 세월호 단식농성장 앞에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 베스트 저장소(일베)' 회원들이 대거 모였다. 이곳에서 이들은 세월호 유가족의 단식을 조롱하는 '폭식투쟁'을 하고, '일베 인증' 손동작(손가락으로 'ㅇㅂ'을 그린다)을 하며 애국가를 불렀다. 일베 회원들</p>	

은 이날을 '906 광화문대첩'이라 부르며 자축했다.”



② 일베의 논리?

일베의 주장들과 논리를 살펴보며 모멸감의 형태로 다름을 표현하는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는 시간을 진행.

- 무임승차에 대한 혐오 : 노력을 하지 않고 보상을 얻으려 하는 태도에 대한 혐오. 신자유주의 사회에서의 일종의 피해자이자 가해자로서의 태도. 어릴 때부터 경쟁이 심화된 사회 속에서 성장했던 경험.
- 이중잣대에 대한 혐오 : 진형논리에 따라 입장이 바뀌는 태도에 대한 혐오. 진보와 보수라는 진형과 이념논리에 따라 태도가 달라지는 사람들에 대한 비판.

③ 모멸감의 태도로 다름을 표현하는 일베에 대한 생각들

- 범죄자로 취급하고 사회 내에서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구성원으로 바라보고 포용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함
- 과거 인터넷상에서 정치적 소수자(보수주의자)로서 소외받았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 그들 역시도 피해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
- 여성의 권리가 신장되고, 점점 더 양성 평등화된 사회가 되어가고 있음. 일베의 여성에 대한 태도를 봤을 때 그들의 행동들이 일종의 남성들의 억압된 태도가 아닐까에 대한 의문.

2. 2차 모임

일시	2014년 10월 30일 목요일 오후 7시
장소	연희동 카페 아디스아바바
내용	
	
<p>· <모멸감>의 프롤로그 : 감정의 사회적 문법</p> <p>미애 : 책머리에 “한국인의 마음 풍경”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모멸감을 설명해주는 말인 것 같다. 프롤로그에서 왜 감정을 사회학으로 접근해야하는지를 설명해주는 글이라고 생각. 감정이라는 게 내 것인 듯 내 것이 아닌 것. 감정이라는 게 이성보다 더 강력하고 중요할 수 있음. 사회학이 과거에는 계급이나 계층과 같은 구조적인 문제에 많이 관심을 갖고 설명했으나, 최근에는 이제 감정이 중요시되고 있음. 감정이라는 것이 중요하게 된 이유가 정치의 문제 때문이 아닐까? 이성적인 판단이나 접근으로 해결되지 않는 정치의 문제들이 많아서 감정을 주목하게 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 <감정의 지정학>이라는 책의 내용이 등장하는데, “서구의 두려움, 굴욕감의 이슬람, 희망에 부푼 아시아”라는 표현이 적절했음. 이슬람권이 테러를 자행하는 것이 서구사회에 대한 굴욕감과 분노의 표출이 아닌가 싶음. 그러한 감정의 상태를 잘 표현해주는 말이 아닌가 생각해 보았음. 감정의 사회학이라는 전반적인 설명을 진행하고 한국인의 마음의 풍경에서는 한국사회에 대한 설명을 덧붙이고 있음.</p> <p>사실 전체적으로 설명 자체는 자기주장이 강하다는 생각. 감정이 중요한</p>	

사회라는 것을 너무 전제하고 설명하려는 경향이 있어 불편한 느낌.

선균 : 근대 서양 사회가 감정을 간과한 이성 중심의 사회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사람을 설득하는데 있어서도 감정이 중요하다는 생각. 하버마스는 공론장을 통한 합리적 의사결정 방법을 이야기하지만 현실적으로 인간은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 보다는 감정적인 선택과 결정을 하는 경우도 많음. 감정이라는 게 의사결정이나 사람을 설득하는데 있어서도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음.

· <모멸감>의 1장 : 모멸감, 한국인의 일상을 지배하는 감정의 응어리

재영 : 1장에서는 첫 번째로 수치심의 양면성을 이야기 하고 있음. 법으로만 사람을 교정할 수 있지 않기 때문에, 수치심을 통해 잘못을 반성하고 교정하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됨. 동양에서는 집단적이고 가족중심적인 경향이 강해 수치심의 이러한 역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예민하게 작동하는 경향이 있음. 하지만 수치심의 역기능은, 부당함에 대한 폭력성으로 나타날 수도 있음. 취약함을 서로 이해하면서 타인의 취약함을 감싸주는 아량이 필요함.

화주 : 말을 잘 안하는 편. 말을 하려면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잘 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음. 그래서 말을 잘 안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말을 점점 더 못하게 된다는 생각. 이것이 바로 모멸감의 한 형태가 아닌가 생각.

미애 : 어릴 때는 자기 싫어하는 마음, 경쟁심이 강했음. 그래서 말싸움을 정말 많이 했음. 말을 점점 줄여가고 못해가는 상황.

재영 : 저는 말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데, 어렵지는 않다고 생각함.

재영 : 1장의 두 번째는 모멸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음. 모멸은 모욕과 무엇이 다른지 설명하고 있음. 인간의 존재감에 대한 이야기. 인간은 목숨을 부지하는 것 이상의 무언가를 요구하는데 그것이 바로 존재감이다. 그런 자존감을 훼손하는 것이 모욕. 모욕과 경멸, 모멸에 대해서 이야기함. 모욕은 그 유발자를 특정할 수 있으나, 모멸감은 상황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도 있음(모멸은 자격지심으로도 느낄 수 있음). 모멸감을 주는 것만큼 모멸을

쉽게 느끼는 것 또한 문제임.

미애 : 타인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감을 느낀다는 것은 프로이트가 설명하는 것과 같은 내용. 어릴 때부터 그런 존재감을 느끼기 시작하는 것과 더불어 모욕이나 모멸감 또한 같이 느끼게 되는 것 같음.

재영 : 어린 시절 수치심이나 상처가 누구나 있지 않은지? 가혹한 행위에 대한 상처들.

화주 :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가장 어린 시기는 언제일지?

미애 : 타인을 인식하는 순간부터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는 생각.

재영 : 모욕이 인간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는지. 그 상처가 폭력으로 표출 됨. 영화 <파수꾼>. 치욕과 폭력의 악순환의 이야기. 미국의 폭력범죄 재소자들을 상대로 한 인터뷰. 그 인터뷰 내용을 들어보면, "상대방이 나를 깔보았다"라는 주장이 많음. 엽기적인 폭력범죄들 역시 훼손된 자아로 인해 발생한다는 사실.

미애 : 외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존감이 중요하다는 사실. 복지국가라 해도 유대감이 있기 보다는 복지가 잘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혼자서 살아가려는 경향성.

76p에 수치심이 어떻게 폭력으로 발전하는지. 수치심을 감추고 싶은 마음과, 자존감을 회복하려는 비폭력적인 수단이 없고, 폭력적인 마음을 제어할 수 있는 환경이 없다는 것.

78p 모욕의 핵심은 상대방의 존재가치를 격하시키는 것이고 이를 통해 나 자신의 존재가치를 상승시킨다고 느끼는 것.

학살과 만행은 개인과 집단에 트라우마를 남긴다는 부분을 읽으면서 세월호 사건을 생각하게 되었음. 물리적 폭력보다 정신적 폭력이 더 오래 감.

고문이나 폭력은 굴종과 복종을 요구하는 것, 체벌이 많은 학교와 군대에서의 경험들이 많은 학생들과 사람들에게 상처를 남겨주는 것이 아닌지 생각해 봄.

화주 : 단체에서 활동을 하며 사람답지 못하게 대우받고 있다는 것을 느

낄 때가 있듯이, 세월호 사건 역시 사회 구성원으로서 사람으로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 이러한 고통과 아픔들이 남아서 사회에 악순환으로 작용하지는 않을까 걱정.

미애 : 영화 올드보이의 유지태의 감정을 전에는 공감하지 못했는데, 요즘에는 공감한다는 생각.

선균 : 영화 더테러라이브에서 범인이 사고로 죽은 아버지를 사람답게 대우하지 못한 정부에 대한 복수감을 표출했던 것처럼, 사회의 참사나 사고가 제대로 치유되지 않고 넘어가면 모멸감의 형태로 사회에 잠재적인 위험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생각. 그래서 세월호 사건의 유가족들에 대한 치유와 위로가 사회 차원에서 잘 이루어져야 함.

미애 : 세월호 뿐만 아니라 성수대교나 국내에서 발생했던 다양한 참사들이 사회에 잠재적인 위험요소로 작용하지 않나 하는 생각.

화주 : 사람들이 사회를 통해 겪는 모멸감들이 많기 때문에 복수를 소재로 한 영화들이 많은 공감을 얻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음.

재영 : 한국사회 경제체제에서 발생하는 모멸감. 돈에 의해 인간의 등급을 나누는 사회. 그렇게 모멸감을 조장하는 사회. 빈부격차에 의한 모멸감 형성. 노동환경에서 발생하는 모멸의 환경들. 감정노동이라는 책. 감정노동 책을 읽다보면 책에 소개되는 사례가 너무 밋밋하다는 느낌. 그만큼 한국사회는 더 심각한 상황. 감정노동의 모멸 구조.

미애 : 89p에서 자본주의를 설명할 때, 자본주의의 동력이라는 게 남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남부럽지 않게라는 대목이 와 닿았음. 사람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하는데 수단이 되는 사회에 대한 부분이 인상 깊었음.

화주 : 학교 다닐 때 공부방 봉사활동을 했었는데, 영구임대아파트 내에 있는 공부방 활동을 했었음, 아이들이 주눅 들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음. 이 아이들을 대할 때 난처한 느낌이 많이 들었음.

· <모멸감>의 2장 : 한국사회와 모멸의 구조

화주 : 2장의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았음. 명색이 사회학자인데, 사회학자 같은 느낌이 아님.

미애 : 책의 내용이 결과를 찾아가기 보다는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주장을 반복하는 느낌이 들어서 불편했음.


화주 : 한국어의 경우 모멸감을 드러내는 표현들이 많다는 주장을 책에서 하고 있으나 그렇게 와 닿지는 않음. 책에서는 한국사회가 권력관계에 민감한 사회라는 주장. 그러나 모든 인간관계는 권력관계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모멸감의 측면에서 설명해야 한다는 강박 때문에 한국사회의 모습들을 너무 끼워맞추는 건 아닌지 문제의식.

재영 : 다른 나라나 사회를 경험해 봤으면 비교하며 읽을 수 있을 텐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책의 내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문제.

미애 : 학자적 측면에서 책을 쓰려면, 최대한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책을 써야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화주 : 신분으로서의 신분은 무너졌지만, 경제적 기준을 바탕으로 신분제가 다시 생겨난 사회. 지위에 대한 집착들이 많음

3. 3차 모임

일시	2014년 11월 4일 화요일 오후 7시
장소	연남동 카페 커피감각
내용	
	
<p>· 2장-6 인종주의와 콤플렉스, 인종에 대한 편견</p> <p>화주 : 일제시대와 미군정에서 생긴 뿌리 깊은 편견과 콤플렉스, 이것보다 만연되어 있는 상황으로는 여성의 타자화, 젠더의식에서 벌어지는 모멸의 일상화가 더 심한데 왜 저자는 그 부분은 이야기 하지 않았는지 아쉬움.</p> <p>· 3장 모멸감에 대한 다양한 사례</p> <p>선균 : 인간이하로 취급하는 사례(아픈 노예를 배에서 떨어뜨려 수장시킴, 독일 나치의 강제 수용소 등), 차별에 대한 이야기(더럽고 지저분한 환경 속에 가둬두고 학대하며 인간 이하의 취급을 했던 독일 수용소 사례)</p> <p>미애 : 비정규직과 정규직 차별들도 비슷함. 서로 다른 정체성을 가지게끔 해서 분열되도록 함</p> <p>선균 : 개천에서 용난다는 속담 자체도 차별적. 개천은 더럽고 하급한 장</p>	

소. 언어에서부터 차별을 불러일으킨다는 저자의 주장. 간사하다, 간음하다 라는 한자도 여성을 비하하고 여성이 남성보다 불결하고 저급한 존재로서 규정하는 언어들에서 비롯되는 것임.

미애 : 3장에서는 7가지 모멸의 스펙트럼을 보여줌. 당하면 모두 아픈데 이 중에서 당하면 가장 아픈 것은 무엇인지? 청년들이 처한 비정규직 문제, 정규직이 되지 못한 사람들의 모멸감. 비정규직은 인간이하로 취급되는 사례들을 보며 이 장에서 이야기하는 것들과 비슷하게 느껴짐.

화주 : 비하, 차별, 조롱, 무시는 모멸적인 감정인데 침해, 동정, 오해는 조금 다른 느낌. 차별을 이야기하면서 여성을 사례로 들었는데 차별은 원래 문제의식이 있었는데 비하, 조롱, 무시는 다뤄지지 않은 부분이라 신선. 이런 모멸감들을 카테고리화 하고 규범화 시킨 것이 좋았음.

선균 : 동정의 경우에는 모멸감을 일으킬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필요하고 동정과 감수성은 매우 유사한 감정인데 저자가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판단한 것은 아닌가 생각.

미애 : 동정도 감정이 상하지 않는 형태로 행동해야 함.

선균 : 여기서 이야기 하는 동정은 무시와 조롱과 유사해서 과도한 동정의 규범화가 아닌가 생각. 동정이 없다면 변화나 시민행동도 존재하기 어렵다고 봄.

· 4장

미애 : 이제부터 대안에 대한 이야기. 관계자체가 거룩한 성전이 된다는 말이 참 멋있게 다가왔음. 인간이 인간을 떠나서는 살 수 없으니까.

첫번째는 품위를 잃지 말아야한다는 이야기. 품의와 정의를 비교하며 이야기 하는데 품위는 정의로는 품어낼 수 없는 것을 포함. 품위 있는 사회를 추구해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

서구사회와 한국사회와 감정노동의 차이를 보여주며 품위를 이야기. 감정은 팔지만 자존심을 팔지 않는 사회가 품위있는 사회.

화주 : 정의를 너무 제한적으로 표현한 부분이 있음. 품위를 중점으로 내

세우다 보면 사람들이 정의는 뒷전으로 들까봐 우려. 감정노동도 감정보다는 임금 등의 처우개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

선균 : 공론장. 사회제도의 문제를 이야기 하는 한편, 자기 개인의 이야기도 공론장에서 할 수 있는 사회가 품위 있는 사회라고 봄.

미애 : 두 번째는 감수성에 대한 이야기. 젠더 감수성, 장애 감수성을 이야기 하며 생각을 환기했던 것처럼 저자는 모욕 감수성도 키워야 한다고 이야기.

세 번째는 환경이 중요하다는 이야기. 네 번째는 돈에 얽매이면 안 된다는 이야기가 주된 내용. 돈은 목적이 아닌 수단. 돈의 원래 위치로 끌어내려야 함. 자살시도자의 예를 들며, 살아갈 방법이 아니라 살아야 할 이유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함.

소수자들의 연대. 차별받고 억압받기 쉬운 상태에 처한 사람들이 서로 연대와 행동으로 모멸감을 넘어설 수 있다.

환대의 시공간에서는 관계의 중요성을 이야기.

· 5장은 마음수련. 내면의 힘을 키우는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설명.

· 맺음말

모멸의 구조, 사회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구조를 바꿔야 함.

문화풍토를 바꿔야 함. 가치 다원화의 사회.

내면의 힘을 키워야 함. 마음을 다스려라.

● 내용 정리

신입활동가들이 각 단체나 영역에서 활동하며 느꼈던 많은 어려움들이 모멸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 <모멸감>이라는 책을 통해 활동가들이 활동을 하며 느꼈던 비하, 차별, 조롱, 무시 등의 감정들이 모멸감에서 비롯되고 있음을 느꼈고, 그러한 모멸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모멸의 사회구조와 문화풍토를 바꾸고, 내면의 힘을 키워야 한다는 생각들을 하게 됨.

그러나 신입활동가들이 단체나 각자의 영역 내에서 그런 역할을 감당해 내기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는 생각. 이러한 문제들을 함께 인식하고 개선해 나가기 위한 선배 활동가들의 도움이 필요함.